

## 프로이트 읽기: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1강

예비 고찰: key concepts

정신분석에서 유아기의 중요성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속담은 유년기에 형성된 성격과 정신 구조가 좀처럼 바뀌지 않음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그 시절에 겪은 자극과 경험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인데, 이는 유아기에는 방어 기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다.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보다 강한 정서가 대체하면 유아기의 정서는 사라질까? 오히려 퇴행 욕구가 다시 발동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 혹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서(감탄, 경악)가 몰려오면 우리는 의지할 절대적 대상을 찾는다. 지금도 깜짝 놀라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엄마야! 혹은 오 마이 갓! 하고 외치지 않는가?

유년기의 상처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억압 때문이다. 무제한 허용되던 쾌락 탐닉은 사회적 인간, 곧 주체가 되기 위해서 억압되어야 하는데, 억압된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남아 다른 형태, 즉 견딜만한 다른 것으로 되 돌아온다.

1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가?

성욕sexuality, 충동drive, 승화 개념 도입

유혹가설에서 환상설로의 이행

이는 심리적 갈등이 외부의 사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내적인 요인들에 기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2 유혹가설이란

어린 아이가 원래 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주변인들에 의해 성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후에 유사한 사건을 통해 성적인 의미를 얻게 되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변하여 결국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의 진술에 따라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었다. 1897년 플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유혹가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밝힌다. 환자의 환상의 구성물

3. 유아 성욕infantile sexuality

앞서의 외상적 사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아는 애초부터 도착적 성욕을 갖고 태어난다는 이론. 사실 성욕에 관한 논의는 초기부터 프로이트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다. 가령 유혹가설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적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성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유발한다. 그런데 유혹가설에서 성욕은 매우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이후 말하는 **성욕은 외연이 크게 확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많은 이들의 비난과 자신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이 개념을 고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경증, 꿈의 의미, 예술 작품의 발생 등의 배후에 유아 성욕이 존재함을 발견했고 따라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신분석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신경증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유년기에 가까운 지인들(주로 부모들)로부터 강한 성적 자극을 받았던 경험을 기억해내는 것을 관찰한다. 이를 토대로 프로이트는 유년기의 성적 자극이 신경증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주장한다. (유혹가설) 그러나 자기 분석을 통

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근친상간을 행한다는 것에 의심을 품는다. 그러니까 신경증자들의 기억이라는 것이 환상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닐까? (환상설) 이는 곧 유아가 이미 성욕을 갖고 있음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환상이 만들어지는 경위는 축적된 과도한 성욕[리비도]가 변환되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프로이트는 환상설로 이행한다. 그런데 유아는 성인과는 다른 성욕을 갖는다. 유아 성욕은 **다형적polymorphic 도착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정상적인 성-심리 발달을 위해 억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잔여물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증상이다. (영양섭취로서의 어머니 젖가슴 빨기 → 엄지손가락 빨기 → 담배, 병나발, 손톱 물어뜯기) 유아의 성욕은 무엇보다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실로 다양한 부분 충동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강oral 충동, 항문anal 충동, 봄/보임 충동 등. 반면 성인의 성욕은 단일하고 제한적이다 → 생식기 충동으로의 조직화. 따라서 애초에 성 목적과 관계가 없는 기관들이 성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입이나 항문.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행위는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도착적인 행위다. 여기서 충동 개념이 도입되는데, **충동의 목적은 만족이며, 이는 대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activity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라캉의 말을 빌리면 충동은 대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순환하는 운동이다.

정리해보면

- 1) 유아 성욕은 선천적이다.
- 2) 성인의 무의식 속에 유아 성욕이 여전히 존재하며, 어떤 새로운 자극과 결합될 경우 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 3) 히스테리 환자는 신체 **증상** 속에서 유아 성욕을 **위장된** 방식으로 반복한다. 가령 표면적으로 성과 무관한 듯 보이는 Dora의 기침 증상은 알고 보니 구강성욕 환상이었다. 이것 때문에 성불구인 아버지와 K부인의 성관계를 환상 속에서 인정 혹은 지지할 수 있었다.
- 4) 유아 성욕의 발달 과정에서 겪는 성욕의 충족과 좌절이 주체의 성격 구조를 결정한다.
- 5) 유아 성욕은 성인의 관점에서는 도착으로 보이기 때문에 억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인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신경증/억압, 도착증/부인, 정신병/배척**

#### 4 본능과 충동

성적인 것이 단순히 신체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정신]로 간다면, 이는 충동을 통해서다. **충동은 신체와 정신의 접경**이다. (라캉에 따르면 충동은 상징계와 실재의 교차로다) 본능instinct은 신체에 머물며 대상과 1:1 대응한다. 동물들에게는 프로그램화된 성 활동 매뉴얼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해서 과유불급의 행위로 목적을 달성한다. 인간의 성욕은 이와 달라서 지나치게 조속하며, 대상 선택과 행위에서 과도함의 양상을 띤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성욕은 육체 속에서만이 아니라 정신 속에서도 표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정신 안에서 신체적 자극을 대표하는 충동 덕분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욕은 애초부터 도착적이다. 그러니까 충동은 부분충동partieltrieb이다. Standard Edition에서 Strachey가 이것을 component instinct라고 번역하였고, 국역본에는 구성 본능이라고 번역되었다. (구판 기준)

『세 편의 에세이』에서 프로이트가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 진보를 이뤘다면 이는 성 충동의 대상과 목적을 구분했고, 성감대 개념을 도입하면서 생식기를 넘어섰고, 단일한 충동의 많은 차원들(원천, 대상, 목적)에 병행하는 다양한 변주/변이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 성적 이상

시작부터 리비도가 성적인 개념인 것을 분명히 한다.

성 대상inversion과 성 목적pervert을 구분한 후 양 측면에서 발생하는 일탈을 논한다.

성 대상은 성적 매력을 일으키는 사람

성 목적은 성 대상을 향한 행동

### 1. 성 대상과 관련한 일탈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암시와 함께 동성을 성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놀랍다는 언급이 나오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이는 정확히 말하면 아전인수처럼 보인다. 오히려 『향연』에서 말하는 내용은 동성애의 정당성 내지는 필연성에 가깝다. 또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병리적 범주, 즉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1) 동성애

동성애자 유형: 1) 절대적 동성애자: 성 대상이 반드시 동성이어야 한다.

2) 양성애자: 배타성은 없다.

3) 조건부 동성애자: 정상적 성 대상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외적 조건하에서만.

동성애자들 중 자신의 동성애적 경향에 대해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암시나 정신분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동성애의 선천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동성애 경향이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중지 혹은 정상적 발달 과정 속에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다. 성 대상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리비도가 정상적 성 대상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후 동성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대상과의 관계에서 좌절이나 심한 상처를 겪은 후 다른 대상으로 리비도가 전이되는 것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가장 극단적 형태의 동성애는 아주 어려서부터 나타나고, 당사자는 그것을 자신의 특이한 성질과 하나인 것처럼 느낄 것이다.

#### 동성애의 본성

동성애는 신경계 퇴화degeneracy의 징후인가? (의학/생리학적 관점)

변태/퇴화degeneracy 번역

정상에서 벗어난 여러 심각한 일탈이 함께 발견되거나 효율적 기능과 생존에 필요한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만 변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동성애가 변태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들이 있다. 첫째, 동성애자는 여타의 심각한 일탈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둘째, 고매한 지성과 윤리적 교양을 갖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며, 마지막으로 고대 문명 절정기에 있던 민족들 사이에서 빈번한 현상이었다.

#### 선천적 특성 vs 후천적 특성

절대적 동성애자를 제외한 두 부류의 동성애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가설과 양립하기 어렵

다. (물론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절대적 동성애자들만을 따로 분류하려 들것이다) 대안으로 동성애의 후천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외적 강제(전쟁, 투옥)에 의한 동성애를 지적한다. (고대 그리스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전우애가 커다란 몫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동성애가 최면 암시로 제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천성과 배치된다. 하브록 엘리스 같은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명백해 보이지만 다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성적인 영향(청소년기의 상호 수음)을 받고서도 영구적으로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후천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 양성 소질

해부학적 증거: 남녀추니, 신체적 자웅동체. 이러한 사실은 정상적인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서 반대쪽 성기관의 흔적들(클리토리스, 남성의 젖꼭지)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정상인 것처럼 보인다. 원래 양성성이었던 신체 구조가 진화 과정에서 퇴화된 몇 가지 흔적들만을 남긴 채 단일한 성으로 진화된 것이라는 가설. 이 가설을 심리적 자웅동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 동성애와 신체적 자웅동체는 무관하다. 동성애자들에게 반대쪽 성의 특징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정상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심리적 자웅동체 이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환자의 정신적 자질과 본능 그리고 성격적 특징에서 반대쪽 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유사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완전한 정신적 남성다움이 동성애와 결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성애 기질은 어떻게든 동성애와 관련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

#### 동성애자들의 성 대상

심리적 자웅동체이론은 남성 동성애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남성적 특성들에서 생겨나는 매력에 빠진 여자와 같다는, 즉 자기가 남자를 찾는 여자라고 느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성다운 정신적 특성을 유지하고 반대쪽 성의 특징을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 가장 남성다운 남자들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그리스에서는 남자의 사랑을 자극한 것이 소년의 여자다운 정신적 특성(수줍음, 겸양, 훈육과 도움의 필요)과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여자와 닮은 면이었던 게 분명하다. → 비난의 소지가 많은 대목. 성 대상은 단순히 동성이 아니라 양성의 특성을 공유한 사람이다.

#### 동성애자들의 성 목적

어떤 단일한 목적도 동성애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령 항문성교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의 유일한 성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상호 수음이나 심지어 성 목적의 제한(감정의 발산에 그치는)이 이성애자들보다 보편적이다. 여성 동성애자들의 경우도 키스를 보다 선호한다. → 프로이트 개인사. 빌렘 플리스와의 동성애적 관계를 참조.

#### 결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동성애의 기원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을 발견했는데 성 충동은 그 대상과는 독립적이라는 사실이다. (충동의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다. 대상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 2) 성 대상으로서 성적으로 미숙한 사람들과 동물들

아동을 성 대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신이상자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학교 선생들과 유아 보모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그럴 기회가 많기 때문이며, 정신이상자와는 단지 정도의 차이이다. 성 충동은 고차원적 정신 활동에 의해 가장 조절하기 힘든 것들 중 하나다. 성 생활에서는 비정상적이지만 다른 점에서는 정상인 사람들은 문화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성욕이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 2. 성 목적과 관련한 일탈

정상적 성 목적은 성교를 통해 생식기가 결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 성행위 과정에서도 우리는 도착으로 전이될 조짐을 발견할 수 있다. 만지고 보는 행위처럼 성 목적에 대한 중간적[예비적] 단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접촉의 사례 중 키스는 많은 나라들에서 성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예외로서 도착과 정상 사이 접점이다. 도착은 해부학적 의미에서 성기의 범위를 넘는 확장된 성 행위, 성 대상에 대한 중간 단계에서 지체하는 성 행위를 말한다.

### 1) 해부학적 확장

#### 성 대상의 과대평가

성적인 과대평가는 성 목적이 생식기의 실제적 결합이라는 제한과 쉽게 타협될 수 없으며 신체의 다른 부분들과 관련된 활동을 성 목적으로 돌리도록 도와준다. 이 과대평가의 중요성은 남자들에게서 가장 잘 연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들의 성생활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입술의 이용

입술과 성기가 결합하는 것은 도착이지만 입술 간의 결합은 아니다. 이 예외가 정상과 도착의 접점이다. 이처럼 성 목적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힘은 혐오감인데, 이는 인습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힘들은 대체로 생식기 자체로는 확장되지 않지만, 히스테리 환자들은 이성의 생식기를 혐오한다.

#### 항문의 이용

항문과 관계되는 성 행위는 혐오감 때문에 성 목적 자체가 도착으로 낙인찍힌다. 그렇지만 문제의 그 기관이 배설 기능을 담당하며 배설물과 접촉하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항문성애의 혐오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성 생식기가 오줌을 누는데 사용된다는 말로 그것에 대한 혐오감을 설명하려고 드는 여성 히스테리 환자들에 비해 나을게 없다고 본다. 항문에 대한 선호는 절대 동성애의 특성이 아니다. 오히려 남성과의 계간[항문성애]은 여성과 행하는 유사한 행위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입과 항문의 점막 같은 신체의 어떤 부분은 사실상 그 자체로서 생식기의 하나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나중에 이러한 주장이 성 발달 역사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페티시즘 - 부적절한 대체물

이러한 현상들은 성 목적을 포기하고 대체물을 성적으로 과대평가함으로써 일어난다. 성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신체 일부(발이나 머리카락) 혹은 그 사람의 성행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물(속옷) 그런데 이 과대평가는 당연히 성 대상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페티시즘은 정상적 애정에도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병적으로 바뀌는 것은 페티시에 대한 열망이 사실상 정상적 성 목적을 대신할 때뿐이다. 비네는 성적 감정을 일으키는 물건의 선택은 유년 시절에 받는 성적 경험의 여파라고 주장했다. (주 28 참조)

주 30 (1910년 추가)

정신분석은 페티시즘의 이해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문제들 중 하나를 해결했다. 물건의 선택과 관련해서 냄새를 맡는데서 억압으로 인해 소멸된 분변기호증적 즐거움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가령 발과 머리카락은 강한 냄새를 지닌 것들이다. 따라서 페티시즘과 부합하는 도착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발뿐이다. 페티시즘에 대한 최종적 버전은 『물신주의』(1927)인데, 여기서는 부인deny 개념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페니스 부재를 인정하면 자신도 거세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므로 그것을 대체할 대상을 찾는다.

## 2) 예비적 성 목적에 도착

새로운 목적의 출현: 새로운 목적들 중 가장 이상해 보이는 것조차 정상적 성 과정에서 암시가 된다.

### 접촉과 주시

어느 정도의 접촉과 주시는 정상적 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즐거움의 원천이고, 흥분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성 행위로 귀착되는 한, 접촉 단계에서 머뭇거리는 행위는 여간해서 도착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는 주시에도 마찬가지다. 문명화와 더불어 몸을 점점 더 가릴수록 성적 호기심이 강해진다. 그러나 이 호기심은 만일 그 관심이 생식기에서 몸 전체로 돌려질 수 있다면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

보고 보이는 행위로 쏠린 도착에서 우리는 매우 괘목할 만한 특성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착에서 성 목적은 능동적 형태와 수동적 형태로 나타난다. 절시증과 대립되면서, 절시증에 의해 무시되기도 하는 힘은 수치심이다.

### 사디즘과 마조히즘

성 대상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욕망이나 그 반대의 경우

크라프트-에빙은 도착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구분한다. 사디즘은 정상적인 것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남자들의 성욕에는 공격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도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학대하는 조건에서만 만족을 얻는 경우뿐이다. 프로이트는 마조히즘을 사디즘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외부 대상으로 투사된 사디즘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 따라서 사디즘/마조히즘은 한 개인에게서 함께 발견되는데, 신경증은 도착증의 음화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인간에게 유효하다. 능동과 수동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항문-가학적 국면이다. (보유/배출) 이러한 사례들에서 리비도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힘은 고통이다. 인간 문명의 역사를 보면 잔인함과 성 충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공격적 요소는 지배 충동에서 유래한다. 또한 고통은 그 자체로서 쾌감을 포함한다. (고통 속 쾌락)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착 충동 가운데 어떤 것들은 통상 반대 충동과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디즘/마조히즘, 능동/수동, 남성성/여성성

